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61호

Tuesday, October 29, 2024 A

“아메리칸 드림 뛰어넘는 영광의 나라 만들 것”

SPECIAL STORY

대통령 선거 D-7 트럼프 뉴욕서 ‘기세몰이’

“미국을 여러분의 꿈을 뛰어넘는 영광의 나라로 만들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MSG)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통해 막판 기세를 이어갔다. 이날 그의 몸짓과 표정은 압살의 위기를 딛고 대선승리를 예감하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내비치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그것과 다름 없었다. 주요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동률’ 혹은 ‘박빙우세’로 쏟아지며 공화당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된 상태다.

이날 트럼프는 “11월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다시금 촉구했다.

민주당 지지성향이 공교한 뉴욕의 심장, 맨해튼 중심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2만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팝스



[사진-로이터]

타의 콘서트를 방불케 예매가 시작된 3시간 만에 바로 MSG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기록을 세우며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청중들은 MSG를 가득 채웠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유세의 하이라이프 저녁 7시경 무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헤리스 행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 소

비자 비용 절감, 국경 보안 강화 등을 주제로 강도 높은 연설을 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미국 시민이나 법 집행관을 살해한 이민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경제 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2026년 1월까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친환경

사기’를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친 헤리스, 반 트럼프 기사 생산에만 집중한다”며 미국 주요 언론사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포용의 정당”으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하며, “유대인, 무슬림, 가톨릭 신자, 복음주의자, 몰몬교도 등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여러분의 꿈을 뛰어넘는 영광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도 무대에 올라 남편을 소개하는 연설을 해 관심을 모았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국민을 위해 미국의 안전, 번영, 건강의 씨앗을 다시 한번 뿌려야 한다”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집회에는 트럼프와 그의 가족 뿐 아니라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프로레슬링의 전설 헤크 호건,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민주당 전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 방송인 필 맥그로 박사 등이 연설자로 나섰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이날 검은색 MAGA 모자를 착용하고 등장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자신이 “비용 절감을 위한 부서 장관으로 임명”될 정부 지출을 극적으로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이날 연사로 나서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전쟁과 CIA의 정당이 되었으며, 월스트리트의 하수인으로 변모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카말라 해리스가 네오콘이 써준 원고로 연설을 하며 전쟁을 선동한다”며 민주당이 “미국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슨스퀘어 가든 인근에는 오전부터 트럼프 유세에 참석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긴 줄이 늘었다. 표를 구하지 못해 입장하지 못한 일부 지지자들은 길거리에서 펼쳐진 즉석 집회 등에 참여해 열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웨스트체스터 출신의 알렉사 브링크는 “뉴욕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노력할 것”이라며 “트럼프 화이팅”을 외쳤다. 아나스 슈아 이브 씨는 “11월 5일 유권자들이 해리스에게 ‘당신은 해고됐다’고 말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세용 기자

“편부모 자녀 학비 지원 불공정”

한인 등 학생들 집단 소송 제기

한인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미국 내 사립 대학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각 대학이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의 자산

까지 포함시켜 학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를 공모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지법에 따르면 에일린 장(코넬대), 맥스웰 한센(보스턴대) 등은 SAT 주관 기관인 칼리지보드와 40개 사립 대학이 반복적 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

기했다.

소장은 지난 7일 법원에 접수됐다. 피고 측에는 하버드대, 카네기멜론대, 존스홉킨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가주에서는 USC, 캘텍(Caltech), 스탠퍼드대도 피소됐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대

학들이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 검토 시 요구하고 있는 ‘대학장학금 지원 개요서(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하 CSS 프로파일)’다.

대학들이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서(이하 FAFSA)를 통해 얻는 정보만으로는 신청자가 가정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 CSS 프로파일을 추가로 요구해 재정 지원 기준을 심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칼리지 보드는 지난 2006년부터 재정 지원 신청자에게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자산 등이 담긴 CSS 프로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 평균적으로 6200달러의 학비를 더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

까지 포함, 중산층 이상으로 분류돼 신청자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CSS 프로파일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FAFSA와 달리 칼리지보드에서 직접 관할하는 서류다.

특히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대학 진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단소송이 승인된다면 현행 기준의 변경은 불가피해진다. 장영기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받지 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진,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VA-센터빌/아난데일/폴스처치/
페어팩스/뉴포트뉴스
MD-게이더스버그/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2/9-12/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2년 앞당긴다... 2029년부터 전력화

방사청, 2033년까지 3조 투입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확보 등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



지난 8월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이 골란고원 상공에서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을 격추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군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를 2년 앞당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며 러시아로부터 개량된 미사일 기술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진 데다 최근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대남 최전선에 배치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러 협력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여파에 대비해 방어태세 구축을 앞당겼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31~2035년이었던 LAMD 전력화 시기를 2년씩 당겨 2029~2033년으로 단축했다. LAMD 사업은 그간 ‘서울 불바다’를 위협해 온 북한군 장사정포로부터 주요 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무기체계인 한국형 3

축 체계 ‘킬체인(Kill-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중 KAMD에 속한다. LAMD 사업의 조기 전력화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물랑공세’에 나설 경우 대비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에 이어 남한 전역을 사거리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

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남 ‘썬어쓰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명령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 포병여단에 장사정포 부대가 편제돼 있다. 방추위 의결에 따라 LAMD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3년으로 정해졌고, 총사업비로 약 2조9494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KAMD의 핵심인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을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개량하는 사업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수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역시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질 가능성에 따른 대응 조치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7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K2 전차 4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기존에 제작된 K2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다. 국산화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생산돼 우리 군에 공급될 150대의 K2에는 국내 방산업체 SNT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변속기가 장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K2 수출분에도 국산 변속기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정혜정 기자

트럼프 “칩스법, 너무 나쁜 거래”... 쉘법 복잡해진 삼성·SK

“보조금 주는 대신 관세 부과하면 미국과 반도체공장 지을 것” 주장
삼성, 보조금 9조 받지만 투자도 막대
SK는 경쟁사보다 훨씬 적게 받아



트럼프 부부, 뉴욕 유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부부가 27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숨죽여 트럼프의 입을 본다. 인텔·TSMC·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지를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이하 칩스법)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너무 나쁜 거래’로 규정하면서다. 칩스법 보조금은 미 정부의 실사를 거쳐 지급되는 ‘후불제’다. 지난봄부터 이미 미국 애리조나 공장 시험가동을 시작한 TSMC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각각 미국 오리건과 텍사스,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는 인텔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도 만만찮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25일 팍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미국

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관세 카드’를 쓰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서 26일 미시간주 유세에서는 미국 내 생산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6%포인트 인하한다는 공약을 다시 언급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도 지난 22일 유세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칩스법을 정치화했다”며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게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6월 트럼프 후보가 “대만이 우리의 칩 사업을 훔쳐갔다”고 비판하자, 당일 TSMC 주가가 2.37% 하락했다. 이후 귀즈후

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 후보의 오해”라는 등 여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후보는 “대만이 우리의 보호를 원하면서도 돈은 안 낸다” “명청하게 우리 산업을 대만에 빼앗겼다” 등 강성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임명을 요구한 국내 경제안보 전문가들은 중앙일보에 “최근 대만 정부 인사를 만나면 ‘실리콘 방패’ 전략이 맞는지 거꾸로 질문해 온다”고 말했다. 그간 대만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을 도맡은 TSMC가 있기에 양안 갈등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최근 대만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 온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쉘법도 복잡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보조금 64억 달러, 약 9조원)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짓기로 했지만, 첨단 공정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막대한 투자도 부담돼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다. SK하이닉스는 보조금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를 약속받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 크론은 칩스법으로 14배나 많은 보조금(61억 달러, 약 8조4000억원)을 쥐게 된다. 게다가 칩스법이 한국의 첨단 반도체 점유율을 낮춘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5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10년 후엔 칩스법 덕분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점유율이 현재 0%에서 28%로 급증하지만, 한국 점유율은 31%에서 9%로 내려간다고 예측했다. 한국 기업들이 당장은 보조금을 기대하지만 장기적 계산이 복잡한 이유다. 미국의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은 기로에 섰다. 회사는 가장 많은 보조금(85억 달러)을 약속받은 ‘칩스법의 총아’지만 아직 임금 소식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의 말처럼 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TSMC, SMIC 등 중화권 기업에 더는 첨단 공정을 내주지 않는다는 기조이므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서현·황수연 기자

워싱턴 날씨 (°F)

30일(수) 79~60 ☀️	2일(토) 61~46 ☀️
31일(목) 82~66 ☀️	3일(일) 67~50 ☁️
10월 29일(화) 70~53 ☀️	4일(월) 72~58 ☁️
1일(금) 72~45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후보자격 놓고 총회 파행도”... 교협 부회장 이택래 목사 당선

(워싱턴한국교회협의회)

워싱턴한국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제 50차 정기총회를 통해 이택래 목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28일(월)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메시아 장로교회(담임목사 한세영)에서 열린 총회 경선에서 이택래 목사가 66표를 얻어 최재종 목사(57표)를 이기고 신임부회장에 올랐다.

교협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옹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부회장 선거가 관심을 모아 왔다.

박 엘리사 목사(49대 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총회에서 부회장 후보 자격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재학 목사의 해임 문제를 거론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집행부는 김 목사가 특정 후보에게 연락하고 협박 문자를 발송했다며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 및 신뢰감 상실, 결의 불복 등의 이유로 위원장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목사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49대 회장 박 엘리사 목사가 신임 전찬선 회장과 이택래 부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했다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은 이 문제가 교협의 고질적인 파벌 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총회에서는 이택래 목사가 버지니아 린치버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하지만 이택래 목사는 회원교회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교협의 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기 때문에 출마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하는 회원들도 많았다.

논란 과정에서 발언권을 갖기 위한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져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총회 중간에는 “목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달라”는 한탄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격론 끝에 입후보한 두 목사 모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이택래 목사가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너스톤교회, 워싱턴제일순복음교회,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서울장로교회, 리빙교회,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열린문교회, 헬로십 교회가 감사패를 받았으며 제 48대 회장으로 수고한 심대식 목사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지선목 목사는 요한일서 4:7-11절 말씀을 인용해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가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협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사랑한다고 해놓고” 해머로 살해한 남편

부인을 망치로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범행 직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순회법원의 매튜 스노우 판사는 피고 피터 제임스 롤로브릿지(52세)가 부인 레지나 레드먼-롤로브릿지도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42년 형량을 적합하다고 선고했다.

피고는 지난 2021년 11월 별거 중인 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해 주방 싱크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해머로 부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피고는 살해 직전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는 모종의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인해 GPS 장착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욱재 기자

“한국어 채택학교 지원금 18만 달러 전달”

워싱턴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육 확대 지원 지속”

워싱턴한국교육원(원장 구영실)이 지난 25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측에 ‘24-25학년도 한국어 채택학교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학년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내 한국어 채택학교 지원금은 총 18만3,188.80달러로 전년 대비 약 0.68% 증액된 금액이다. 지원금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미셸 레이드 교육감에게 전달됐다.

전달된 지원금은 한국어를 과목으로 채택한 중고등학교(센터빌HS, 웨스트필드HS, 샌틸리HS,레이크브래덕SS, 리버티MS, 캐서린존슨MS, 온라인 캠퍼스)의 교사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어 반에서 교수-학습자료 구입, 문화체험 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총 3만6,300달러를 학교별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교육원 측은 밝혔다.

한편, 이번 학년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한국어 과정은 1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3개 중고통합학교, 1개 초중고통합학교 등 총 18개교에서 정규교과로, 2



(왼쪽부터) 문일롱 카운티 교육위원, 구영실 워싱턴한국교육원장, 미셸 레이드 카운티 교육감, 캐서린 스톤 외국어교육지원실장.

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워싱턴 한국 교육원은 “향후에도 새롭게 한국어반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어반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독도는 한국 땅!”

맥클린 한글학교(교장 이은애)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 수업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독도를 기념하는 작품과 태극기를 만들고, 독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도 배웠다.

또한 학교측은 독도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독도 스티커’를 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은애 교장은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독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이 제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였다.”라고 전했다. >문의: 571-235-8997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온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기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협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

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기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은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세계 최대 핼러윈 EDM 달군 한인 DJ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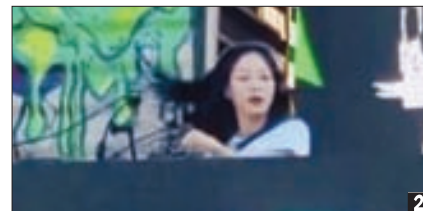
세계 최대 핼러윈 EDM(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페스티벌 ‘이스케이프 핼러윈’(Escape Halloween)이 지난 25일과 26일 샌버나디노 NOS 이벤트 센터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한인 디제이 ‘데이지(DAIZY)’가 첫 무대에 올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주최사 인섬니아(Insomniac)에 따르면, 올해 페스티벌에는 약 6만 명의 관객이 참여했으며, 80여 명의 아티스트가 5개 이상의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펼쳤다. DAIZY로 활동 중인 한인 디제이 이혜지씨는 메인 스테이지 중 하나인 ‘스위 디스트릭트(Sewer District)’의 첫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첫곡으로는 핼러윈 분위기에 맞춘 오싹한 미발매 곡을 선보였다. 이씨는 “베이스 음악의 성지에 오게 돼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미국 관객을 위해 다양한 베이스 음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공연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중 하나다”라며 “미국 관객의 음악 이해도와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대는 이씨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작년 디제이 ‘루시드



1 샌버나디노 NOS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이스케이프 핼러윈’ 페스티벌 현장. 이날 행사에는 약 6만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인섬니아사 제공] 2 한인 디제이 이혜지씨가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다. [데이지 제공]

(Luzcid)’의 시카고 공연에서 오프닝을 맡았던 그의 무대를 인섬니아의 텔런트 팀이 주목하면서 이번 페스티벌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씨는 “소속사와 음반 계약에 의존하기보다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음악을

홍보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6년 DJ로 데뷔한 후 한국의 주요 클럽과 페스티벌에서 활동하며 커리어를 쌓아왔다. 지난 2019년 EDC Korea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이후 자신만의 스타일과 베이스 음악에 대한 애정을 널리 알렸다. 정윤재 기자

핼러데이 시즌 소비자 지출 늘린다

올해 핼러데이 시즌 소비자들이 지난 해보다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이한 점은 젊은층 소비자 중 중고 매장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도 높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큐리티스는 핼러데이 시즌 쇼핑에 지난해보다 7% 늘어난 평균 2100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븐 주노뱅크오브아메리카 시큐리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강한 노동 시장, 인플레이션 하락세, 실질 임금 성장률 모두 연말연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다.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도 지난해보다 소비자 지출이 전년 대비 8% 늘어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국소매업체 연맹(NRF)도 프로스퍼 인사이트 앤 애널리틱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핼러데이 쇼핑 지출 증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특히 젊은 세대 쇼핑객은 연말연시 선물을 위해 중고품 매장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

로버트 안,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 전망

LA한인회 후보 서류 1명 수령
서류통과후 등록시 당선 확정



제37대 한인회장 선거가 무투표로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자 서류 배부 기간 동안 등록 서류를 수령한 사람은 로버트 안(사진) LA 한인회 이사뿐이었다.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서류 배부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등록 서류를 수령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후보 등록 서류 배부 기간 동안 등록 서류를 수령한 사람은 로버트 안

이사 단 1명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배부해왔다. 안 이사는 지난 24일 서류를 수령하고, 후보 등록금 5만 달러 중 5000달러를 선납한 바 있다.

안 이사가 정식 단독 후보가 된 것은 아직 아니다. 그는 현재 예비 후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월 6일까지 후보 등록 제반 서류 29개를 모두 제출해야 정식 후보가 될 수 있다. 만약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

은 서류가 있다면, 서류 보완 기간(11월 7일~8일) 동안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안 이사는 문제가 없을 경우 선관위 정관에 따라 단독 후보로 투표 없이 제37대 LA 한인회장이 될 수 있다.

만약, 안 이사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납한 5000달러는 돌려받을 수 없다. 또, 등록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다시 30일 내로 후보 접수 일정을 결정해 재등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도 등록 후보가 없으면 한인회 이사회가 선거 일정을 다시 변경하게 된다.

한편, 단독 후보는 선거 비용 8만 달러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김경준 기자



전화:

1-888-274-8683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 VOTE



AAJC

미성년 자녀 추가시 “차 보험료 연 2만불”

〈5인 가족 기준〉

1년 만에 2~3배 급등 사례 빈번
16세 자녀 가입하면 5천불 올라
사고 후 보험사 갱신거부도 늘어
성적우수 혜택 등 할인방법 모색



자동차 보험료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에 추가하면 자칫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이 2만 달러 이상 보험료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뉴욕에 사는 리아 카터는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동차 보험엔 다섯 명의 운전자와 다섯 대의 차량이 포함돼 있다. 최근 카터 가족의 보험료는 1년 새에 두 배가 넘게 뛰여 2만1000달러가 됐다. 전문가들은 카터 가족은 미성년 운전자 추가, 자동차 추가, 교통법규 위반 등 보험료가 급등할 모든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성년 자녀를 추가한 게 보험료 급등의 주원인이었다. 카터는 16세 막내아들을 운전자로 추가하니 보험료가 5000달러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가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주에 사는 데비 무카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16세 딸을 운전자로 추가하자 보험사 측에서는 1년에 1700달러였던 보험료를 5000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세배 가까이 뛴 것이다.

보험 업계는 미성년 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빈도가 높고 손실률도 높아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올린다고 설명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데이터에 따르면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운전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이 낸 사망사고의 비율은 전체의 8.1%나 된다. 경찰에 보고 될 정도

의 큰 교통사고 중 미성년 운전자가 낸 비율은 12.0%였다. 어린 운전자가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업계는 전했다.

특히 미성년 남성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여성보다 더 컸다. 미성년 여성 운전자 10만명당 22.74명이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엔 두 배 이상 높은 58.73명이나 됐다. 다만 가주의 경우 성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린 여성 운전자라고 해서 보험료 상승 폭이 더 작지 않다.

보험료 급등도 문제지만 사고를 낸 후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갑작스레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NYT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몇 가지의 방법을 소개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받는 할인이다. GPA가 3.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인은 15~20% 사이다. 다만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료 총액이 아닌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할인이 적용된다. 또 방어운전 코스를 이수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미 보험에 가입된 미성년 자녀가 타주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NYT는 ‘엄격한 훈육’이 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자녀들에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사고를 내서 보험료 상승시 그 상승분을 본인들이 내야 한다고 가르치면 자녀들이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틱톡 스킨케어 따라하다가 “심각한 피부손상 주의”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킨케어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던 10대 청소년이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에담 프리드먼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한꺼번에 10가지 이상의 화장품과 정제불명의 화공약품에 얼굴에 바르면 제 아무리 건강한 피부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탈이 나게 마련이다”면서 “특히 10대 청소년의 피부는 성인과 달리 매우 약하고 민감해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10대 청소년 중 특히 여드름을 지닌 민감 피부 유형의 경우 박테리아 감염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노화방지용 화장품은 10대 청소년에게 바를 경우 매우 심한 건조와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데, 일부 약덕업자들은 청소년에게 이러한 제품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먼 교수는 “날씨가 온화한 워싱턴 지역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스킨케어는 야외활동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기 전에 수분보충 크림을 바르는 정도”라며 “어릴 때는 최소한의 간섭이 최선의 대책일 수 있는데, 청소년 스킨케어가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김욱재 기자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할리데이 여행 축소

일정·장소·교통편 변경 83%
소득·세대 불문 긴축 트렌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음에도 5명 중 4명 이상이 올해 할리데이 시즌 여행 계획을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금융 서비스업체 뱅크레프트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할리데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변경 유형으로는 여행 기간 단축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더 저렴한 여행 패키지나 관광지로 변경 30%, 항공편

대신 차량 이용 28%, 액티비티 비용 줄이기 25% 순이었다. 이외에도 여행 횟수 줄이기, 마일리지·포인트·로열티 프로그램 활용, 운전 대신 항공편 이용이 각각 23%를 차지했으며 장거리 대신 근거리 여행이 21%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이 이번 할리데이 여행 계획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와 5만~7만9999달러가 각각 86%, 8만~9만9999달러 85%, 10만 달러 이상 77%가 인플레이션으로 여행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소득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축소에 나서는 것으로 분



석됐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28~43세)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G세대(18~27세) 84%, X세대(44~59세) 83%, 베이비부머(60~78세) 72%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이 여행 계획 변경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 지불 수단의 경우 데빗카드 또는 현금이 45%, 크레딧카드 일시불 37% 순이었으며 각종

포인트·마일리지 사용도 24%에 달했다. 22%는 크레딧카드 할부로 지불했으며 가족·친지 도움 13%, 선구매 후 지불은 10%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9%는 여행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또는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단기 임대시설에서 숙박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추수감사절 11%, 크리스마스 시즌은 14%에 그쳤다. 호텔·단기 임대 등으로 지출할 평균 숙박비는 추수감사절 85달러, 크리스마스 95달러 수준이었다.

항공편을 이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크리스마스가 14%로 추수감사절 8%보다 많았으며 평균 항공료는 추수감사절 925달러, 크리스마스 1165달러

로 예상됐다.

한편, 뱅크레프트가 소개한 여행 경비 절약 요령으로는 항공편의 경우 가장 저렴한 일요일에 예약하고 주중에 탑승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급적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항공편을 이용한다.

직접 자동차로 떠날 때는 간식과 도시락을 준비하고 교통 체증이 심한 날을 피해 떠난다. 호텔에 따라 크레딧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 적립은 물론 무료 아침 식사 또는 숙박, 체크아웃 연장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크레딧카드 지불은 평균 이자율이 20.65%로 높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 무이자 혜택이 있는 카드를 사용하고 프로모션 종료 전에 갚는 식으로 절약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 인생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Financial Marketing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초라해진 미국... “중동 갈등 주도권,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이란과 친(親)이란 무장세력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보복 수위를 조절하도록 교섭에 나서는 등 일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분쟁 종식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을 위협해온 세력들을 제압하고 역내 역학 구도를 재편한다는 목표로 중동 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미국의 역할이 쪼그라든 동안 이스라엘이 중동 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가와 전직 외교관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들은 현재 중동의 갈등 상황을 이끄는 쪽은 이스라엘이라며 미국은 동맹인 이스라엘의 ‘왕관’ 역할로 강등됐다고 진단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중동 분쟁을 중재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것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은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협정 등을 중재하며 중동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지로 전선을 넓히는 과정에서 확전을 막는데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론, 미

국이 영향력을 발휘한 측면도 있다.

특히 이달 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일각에서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과 핵 시설 등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지난 26일 보복을 단행하면서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 내 군기지 등을 목표로 삼았으며, 사전에 이란 측에 표적물과 관련한 인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은 중동 분쟁을 종식할 ‘평화 구상’과 관련해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역점을 뒀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인질 소수를 석방하는 일종의 ‘스물달’을 위한 협상은 재개됐지만, 중동 정세를 안정화할 보다 포괄적인 종전 계획을 아직 제안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이 크게 제한돼 있음을 깨닫고 평화를 위한 큰 구상을 내놓기보다는 대부분 외교적인 수습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분쟁을 역내 헤게모니 재편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는 가자지구 전쟁을 활용해 이스라엘의 적들 전반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NYT에 설명했다.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측에선 역내

역학 구도를 재편할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측에선 이스라엘이 뚜렷한 계획도 없이 분쟁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중동의 ‘격변’을 이용해 변화를 추진했다며 이번 중동의 위기 역시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적들을 상당히 약화했다면 “이것은 지역 안정과 평화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질 기회”라며 “분명히 희망의 순간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연정에 기대고 있다는 점 등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면 평화를 위한 ‘빅 딜’을 성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커처 전 대사 역시 “비전이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바이든, 대선 8일 앞두고 사전투표... “우리가 이길 것”

트럼프에 “역겹게 부끄럽다” ‘트럼프 복권’엔 “부적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을 8일 앞둔 28일 사전 투표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한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소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를 완료하기까지 40여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성을 밀어주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중심부의 경기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세했을 때 찬조연설자들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언급하는 등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역겹게 부끄럽다”(sickly embarrassing)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다”며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내가 만난 대부분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입을 열 때마다 논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 지원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1백만 달러 상

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사전투표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에게는 쓸쓸한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6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한껏 부각된 뒤 지난 7월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재선 도전을 접었기 때문에 이날 자신이 아닌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투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유세조차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일까지 두 사람의 공동 유세 일정도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복권 중단하라” 머스크에 소송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건 것과 관련해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 지방검찰이 28일 상급 지급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는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급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경합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달러 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급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4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1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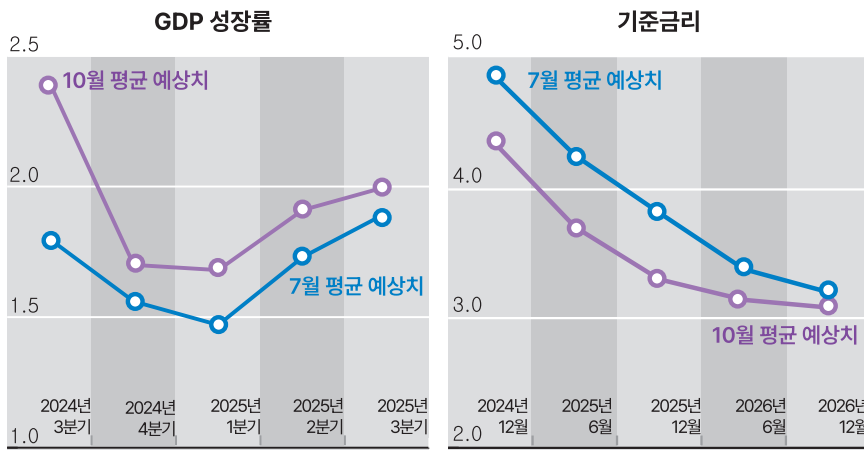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경제전망 장밋빛 ... 대선이 변수

이코노미스트 66명 설문조사
성장률 상승, 금리 하락 예측
실업률과 물가는 하향 안정
트럼프 당선시 물가·적자 악화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국내 경제는 불황에 빠지지 않고 안정기로 들어설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대선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국내 유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국내 경제의 모습은 '장밋빛'이다.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과 물가의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또한 향후 계속 인하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해석된다. 다만 빅컷 이후에는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금리가 3% 초반대로 진입하는 시기는 2026년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실업률에 대한 전망은 7월과 10월에 모두 4% 초반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9월 실업률은 4.1%였다. 향후 12개월간 추가될 일자리 수(13만여 개)는 7월과 10월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이러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준이 물가에 대해 판단할 때 선호하는 지수 중 하나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2024년 예상 평균치는 2.32%였다. 이는 7월 예상치인 2.49%보다 낮은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해 온 연준의 목표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2025년에는 PCE가 2.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봤다. 팬데믹 이후 보였던 고물가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선 변수**
경제 예측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대선이 큰 변수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치했다. 특히 최근 보편관세와 팀면세 등 파격적인 경제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인 7월 조사 당시 양당 대선 후보 중 어떤 쪽이 당선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 시 고물가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8.0%나 됐다. 12.0%포인트나 급등했다. 해리스는 12.0%에 불과했다. 재정적자 또한 트럼프 당선 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응답률은 해리스의 10.2%를 압도하는 65.3%나 됐다. 7월 동일 질문에 대한 트럼프와 바이든의 응답률은 각각 51.0%와 22.4%였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WSJ이 경제에 대해 정통한 이코노미스트 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다. 조원희 기자

위기의 보잉, 150억달러 자금조달 계획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밝혔다.



보잉 737 MAX 여객기

로이터통신은 27일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잉이 이르면 28일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조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잉은 지속적인 파업으로 악화된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주와 전환사채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에 따라 자본 조달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보잉 측은 이런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파업에 들어간 보잉의 노동자들은 파업 중단을 놓고 찬반투표를 했으나 큰 표 차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인기機種인 737 맥스 등 생산라인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잉은 이달 초 규제 당국으로부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250억 달러의

신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보잉은 지난 1월 초 737 맥스 항공기 도어패널이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고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보잉은 올해 내내 자금 부족에 시달렸다. 지난주에는 분기 손실이 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에는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등 주요 대출 기관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주유 혜택 제공

프라임 멤버십 대상



전자 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은 국내 약 7000개의 주유소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폭스비즈니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주유소에서 갤런당 10센트를 할인하는 연료 절약 혜택을 프라임 멤버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라임 회원이 새로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적격 주유소는 모두 BP, 아모코 및 am-pm 스토어 지점이다.

아마존에 따르면 이 혜택을 받으려

면 프라임 회원은 어니파이(Earnify) 계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아마존 계정에 연결해야 한다.

자필 가니 아마존 프라임 부사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프라임 회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전국적으로 일반 휘발유 1갤런의 평균 가격은 3.155달러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6% 이상, 1년 전보다 11.1% 하락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핼러윈 캔디 발암물질 함유

적색 3호 포함 8개 제품
컨수머리포트 주의 당부

핼러윈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캔디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컨수머리포트는 유럽서 사용이 금지되고 미국서는 일부 화장품에 들어가는 발암물질인 적색 3호 색소가 함

유된 캔디를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지난주 보도했다.

음식과 음료에 밝은 체리색을 띠게 하는 석유 합성 염료 적색 3호는 여러 연구 결과 동물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과잉 행동 및 기타 신경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 위해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 체중이 적고 노출량이 많아



가장 취약할 수 있다.

적색 3호 색소 함유가 확인된 핼러윈 캔디로는 브라치(Brach)의 Candy Corn·Autumn Mix·Mellowcreme Pumpkins(사진)를 비롯해 Nerds

Candy Corn, Double Bubble bubble gum, Pez Candy, Amos Lollipop Rings, Create-A-Treat Halloween House 등 8종이다.

현재 시판 중인 어린이용 인공 향료 및 인공 색소 캔디 등 약 2900개의 식품에 적색 3호 색소가 포함돼 있으며 연방식품의약품(FDA)은 제조업체가 적색 3호를 식품 라벨에 성분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 가주에서는 식품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될 예정으로 컨

수머리포트는 약 8만명의 소비자가 서명한 적색 3호 식품 사용 금지 촉구 청원서를 지난 24일 FDA에 전달했다.

컨수머리포트 식품정책 담당 브라이언 룬홀름 디렉터는 "부모들은 자녀가 핼러윈에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일부 캔디들이 발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조업체는 덜 위험한 대체 물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료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우크라 “북한군, 민간트럭 타고 최전선 이동”... 감청파일 공개

“북한군 이송 돕는중” 등 대화 담겨
WSJ “북한군은 10대~20대 초반”
전문가 “반응 살피려 신병 보낸 것”
한·미 외교·국방, 31일 관련 논의



러 대사관 앞에서 “북한군 파병 규탄”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이용해 김정은의 금고로 목숨값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민간 차량을 이용해 최전선으로 수송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르면 28일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장으로 이동 중인 북한군들이 최전에 특수부대가 아닌 10~20대 초반의 신병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기관(HUR)이 북한군이 쿠르스크주도 이동 중인 동향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격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최전선이다. HUR은 이날 쿠르스크-보노레이시

고속도로에서 녹음된 감청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민간 변호관을 단 트럭이 전투 임무 관련 서류 없이 쿠르스크로 가다 헌병에게 제지당하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러시아군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겼다. 대화에선 “그

(운전사)가 이미 상황을 해결했다. 그는 북한인의 이송을 돕고 있다”는 보고 내용이 나온다. HUR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 병사들이 쿠르스크의 러시아 부대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가 27~28일 북한군을 전투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감청 내용이 젤렌스키의 발표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도착했다고까지 보도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WSJ가 공개한 영상과 미국 당국자의 발언 등을 인용해 쿠르스크에 집결한 북한군이 10~20대 초반의 신병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점이다. WSJ는 “옛된 얼굴의 신참 병사들은 지금껏 북한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낡은 재래식 군사장비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최전에 특수부대인 ‘폭풍군단’(11군단) 소속 병력 등 총 1만2000여 명을 파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2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단순한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미

국 싱크탱크 퍼시픽포럼 제임스 JB 박 연구원은 “북한은 먼저 소모 가능한(expendable) 병력을 보내 국내의 반응을 살피려고 할 것”이라며 “이후 노련한 병사들이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다. NAC는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과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는데 이어 31일엔 3년 만에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군 파병에 따른 한국의 단계적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박형수 기자

북 “평양추락 무인기, 백령도서 이륙” 군 “북 일방주장, 대꾸할 가치도 없다”

북, 비행계획 경로 그래픽도 공개
김여정 “서울에 무인기 뜨면...” 위협



북한이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며 28일 공개한 경로 그래픽.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8일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침입 경로, 침입 목적을 확정한 주권 침해 도발사건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비행 경로에 대해 대변인은 10월 8일 23시25분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초도 주변 해상~남포읍도 주변 해상~남포시 천리마구역 상공을 거쳐 수도 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9일 1시32분8초 외무성 청사 상공에, 1시35분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지선동 오물을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 무인기의 비행계획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도 함께 공개했다. 대변인은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도발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

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를 통해 서울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우리 군부가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하면 서울의 들개무리들이 어떻게 짖어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위협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중국서 ‘신방첩법’ 한국인 첫 구속

(반간첩법 개정안)

삼성전자 반도체 20년차 기술자
8년 전 중국 창신메모리로 이직
중, 반도체 정보 한국에 유출 의심



중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메모리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長鑫存儲)에 근무하던 50대 한국인 A씨가 자택에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A씨 가족은 당시 수사관이 간첩죄 혐의가 적힌 ‘지정장소 감시거주통지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검찰이 구속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A씨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상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가족들은 A씨가 구치소에 갇혀 다섯 달째 지병인 당뇨병약도 받지 못했다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재판을 받기 전에 한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교당국에 호소했다.

2016년 창신메모리에 해외 인재로 영입된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20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중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2곳에서 근무했는데,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 2016년 업계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창신메모리는 올해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신방첩법을 시행했는데,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적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다. 개정 전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라도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한 경우’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겨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중국과 골치러운 관계인 한·미·일 3국과 대만 등의 우려가 컸다. 중국과 충돌했을 경우 신방첩법을 근거로 중국이 자국 기업과 국민을 노리는 이른바 ‘인질 외교’를 할 수 있어서다. 이에 해당국들은 신방첩법 시행을 영사업무 관련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중국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지난해 6월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배이정·신경진 특파원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높이가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상담 내용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Sponsored by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희귀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친한 “특별감찰관 의총 공개하자”... 친윤 “논할 가치 있나”

친한 “김여사, 당보다 우선해선 안돼” 친윤 “조용히 의견 종합해야” 신경전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특별감찰관(특감) 추천 문제를 놓고 시작된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 의원총회 공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감 이슈를 처음 제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치중했지만, 친한계들은 특감 관련 공개 의총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 발언 대부분을 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 데 대해선 “장의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민주당 총동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보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천-삼척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및 조기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망스럽다”고 직격했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은 뭐냐”고 따졌다.

한 대표는 전날 청년 100여 명과 함께 한 행사에서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주장한 근본적인 이유가 ‘쇄신을 통한 여론 승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30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변화와 쇄신’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친한계 인사들은 특감 문제를 둘러싼 ‘공개 의총’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공당인 국민의힘은 사적 총성과 이해관계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선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에게 알리지 말고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인오환 최고위원)는 친윤계 입장과 배치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중앙일보에 “(특감 문제가) 드러내 놓고 논의할 가치가 있나”고 반문했다.

당 일각에선 “특감 문제가 아니라 의총 공개를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에는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공개 여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민정 기자

“대통령은 한번도 반대한 적 없어” ‘특별감찰관’에 복잡한 용산 속내

“임명 반대 프레임 씌우려는 것” 한동훈 추진에 불편함 내비쳐

윤석열 대통령만큼 특별감찰관 제도를 잘 아는 정치인도 드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취임 후 벌어진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척의 비위를 감찰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2018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의 수사를 지휘해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단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도 과거 정부처럼 문제 될 건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 자신의 장모가 2년 전 의료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 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 ‘특별감찰관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용산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대표 측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자주 말한다. 한 대표는 24일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엔 이런 주장에 “마치 용산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없고, 한 대표의 “미룬다”는 표현이 용산을 겨냥한 것이라 여겨 불편해 한다. 박태인 기자

국회 규칙 맘대로 고친 민주당...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강행

(운영위 소위)

여당의 상설특검 참여 봉쇄도 의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 국민의힘 “예산안 통과 지연 우려 입법독재 넘어 행정부까지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의 사전 작업으로 여당의 상설특검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수 없도록 명시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각 1명씩 총 3명,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 2명씩 4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은 국회 몫 4명 추천권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 차관과 대

한변협회장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보수성향 후보를 추천해도 추천위는 3대4 천야 우세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일반특검과 달리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규칙 개정안을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대통령 부인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본회의의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고 나면 예결위에서는 예산 의결을 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11월 30일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국

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이 기소·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은 운영위 회의 도중 반발하며 퇴장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본회의의 자동 부의 폐지법에 대해서도 “예산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법안에서 제외하면 예산은 올라가도 법안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없다”며 “다수당과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좌지우지 하게 된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기존 법체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재 기자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세종 후코펫

-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703-256-7671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얼음 구해요” 마약 은어 채팅방 버젓이 운영중

(필로폰)

국내 앱 마켓에 랜덤채팅앱 250개

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즐독’에 “시원한 아이스(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함께 하실 분?”이란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양모(52·남)씨는 “(아이스를) 갖고 있다”며 박양에게 접근했다. 박양 일행은 텔레그램 영상통화를 통해 양씨가 실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 중랑구와 중구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양 등 10대 3명과 양씨, 이들과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 오모(47)씨 등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년 전부터 이른바 조건만남 등의 이름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돼 온 랜덤채팅이 최근 청소년 도박·마약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미 4년 전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차단·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랜덤채팅 앱은 서로 아는 지인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등과 달리, 같은 지역·남녀 등 사용자가 설정한 범주에 따라

블록정 타인을 무작위로 연결해 준다. 28일 기준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선 총 250여 개 앱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성인 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날 즐독 앱에서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니 바로 가입이 가능했다.

다른 앱에서도 ‘얼음(필로폰) 구해요’ ‘누드(캔디, 마약을 뜻하는 은어) 구합니다’ ‘작대기(필로폰 주사기 또는 1회분 의미) 있으신 분’ 등 은어를 사용한 마약 채팅방이 다수 발견됐다. 성매매 등 성범죄를 암시하는 채팅방도 많았다. 한 랜덤채팅 앱에 ‘19세 여성’으로 가입하고 관심사를 ‘애인 만들기’로 설정하자, 5분 만에 쪽지가 쏟아졌다. 이 중엔 “자그(조건만남을 뜻하는 줄임말)”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관련 범죄 문제는 이 앱이 등장한 2015년 무렵

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랜덤채팅 앱 음란·성매매 정보 적발 및 시정요구 건수는 2019년 3297건에서 지난해 1만4958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미 1만4341건으로 집계돼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나 도박·마약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막거나 문제의 사용자를 차단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현재 각 부처가 불법 정보를 따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람·이찬규 기자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으로” 세계 힙한 작가들, 울산 총출동

‘그래피티 예술가’ 페어리·존원 ‘고양이 무슈샤’ 그린 토마 뷔유 등

울산시가 국보 제285호 ‘반구천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 시내 곳곳에 세계 유명 거리예술 작가의 벽화 등이 내걸렸다. 이들 작가는 선사시대 바위 그림인 반구천 암각화가 거리예술의 시원(始原)이라고 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응원하자는 차원에서 재능기부를 했다.

재능기부 작품은 울산 곳곳에 있다. 먼저 남구문화원 외벽에는 가로 5m, 세로 12m 벽화형 포스터가 내걸려 있다. 미국 작가 세퍼드 페어리가 그린 이 포스터는 지구 보호를 주제로, 고래와 나무 형태의 지구 이미지로 완성했다. 작가는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선거 유세 포스터, 카말라 해리스 미 대통령 후보의 초상을 그렸다. 그는 최근 반구천



‘반구천에서 어반아트’ 전시로 울산에 찾게 된 토마 뷔유가 울산과학대 벽에 웃는 노란 고양이 ‘무슈샤’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 울산과학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마련한 ‘반구천에서 어반아트’ 전시 참석차 울산에 찾았다가 해당 작품을 제작해 선물했다고 한다. 세퍼드 페어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스튜디오를 두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스프레이 페인트와 스텐실·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예술의 영역을 갤러리에서 거리

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분수대 앞에는 고래·장미꽃·여성 얼굴 등이 새겨진 가로·세로 각 5m 크기의 조각형 벽화가 있다. 포르투갈의 로맹으로 불리는 유명 조각가 빌스가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면서, 지난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울산에서 직접 만들어 내건 재능기부 작품이다. 빌스



조각가 빌스 작가 세퍼드 페어리

는 폭약·드릴 등을 활용한 조각 기법을 활용,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작가다. 이와 함께 울산과학대 건물 벽 곳곳엔 웃는 노란 고양이 그림인 ‘무슈샤’로 유명한 토마 뷔유 벽화와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문화예술 부문 훈장을 받은 존원 벽화가 있다. 또 울산과학대 캠퍼스 1공학관 외벽에는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문화예술 부문 훈장을 받은 미국 출신 그래피티 작가 존원 작품도 있다. 존원 역시 지난

6월 같은 전시회 참석차 울산에 찾았다가 기획사 등 지인 초청으로 학교를 방문, 12시간에 걸쳐 외벽에 가로 7m×세로 19m 그래피티를 그렸다. 그래피티에는 ‘Rock’(암벽) 같은 단어가 쓰여 있다. 선사시대 바위 그림인 반구천 암각화를 떠올리며 그린 것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미국 국적인 존원은 그래피티를 거리의 낙서에서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발전시킨 작가다. 에어 프랑스·롤스로이스·LG 등 글로벌 브랜드와 다양한 협업을 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잠실에 있는 한 전시장에서 젊은 남녀가 훼손한 고가(5억원 추정)의 그림도 존원 작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예전 세퍼드 페어리를 비롯해 존원·빌스·토마 뷔유 등 세계적인 거리예술 작가가 울산 도심 곳곳에 좋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면서 “울산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세계인이 찾는 ‘콜롬보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62년 연기인생 신구·강부자 ‘은관문화훈장’

문화훈장 6명 등 31명에 훈장·표창

배우 신구(본명 신순기·왼쪽 사진)와 강부자(오른쪽)가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이들을 포

함해 총 31명(팀)이 훈장과 표창을 받는다. 올해는 문화훈장 6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10명(팀)을 선정했다.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해 60여년 간 영화·드라마·연극을 넘나들며 활동해 ‘연기 장인’이라는 타이



틀을 얻었다. 강부자는 1962년 KBS 공채 2기로 데뷔해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과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해 대중의 사랑을 울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가수·DJ·배우 등으로 활약하는 김창완과 ‘유머1번지’ ‘우정의 무대’ ‘불후의 명곡’ 등의 프로그램을 쓴 방송작가 임기홍이 선정됐다.

은관문화훈장은 가수 이문세, 화관

문화훈장은 ‘고려거란전쟁’ 등 많은 사극에 출연한 배우 최수종이 각각 받는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는 블루스 기타리스트 김목경, 배우 염혜란·조정석, 뮤지컬 배우 홍광호, 영화감독 김한민, 성우 김도현, 녹음예술가 이태경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배우 천우희·이재훈, 뮤지컬 배우 최재림, 가수 장기하, 성우 김영진, 영화감독 장재현, 음악감독 김성수, 작곡·작사가 캔지가 수상한다.

정현목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워싱턴 권력 이행기 '검은 백조' 출현 가능성 경계해야

'검은 백조'가 온다.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 직후 승자도 패자도 없다면 그렇다. 우려가 기우로 끝나기 바란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을 검은 백조(블랙스완)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도, 카멀라 해리스도 승자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기가 바라는 결과만 생각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희망사고를 경계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워싱턴의 권력 이행기, 슬기로운 위기 대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미국 정치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선 불출마와 같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작가들도 상상하기 힘든 극적인 정치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그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분위기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리얼리티쇼가 아닌 초현실주의 드라마처럼 느껴진다.

8년 전과는 달라진 선거 분위기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전국 득표율에서 2.1%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경합주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클린턴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합주 득표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 결과가 매우 근소한 경우,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미국 민주당은 8년 전과 또 다르다. 민주당 내 반(反)트럼프 정서는 극심해졌다. 트럼프의 재선을 민주주의의 종말로 여기는 혐오감도 팽배하다.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의 대선 결과가 연방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과연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까? 조지 W 부시(공화당)와 엘 고어(민주당)가 맞붙은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 재개표 공방 이후 고어 부통령이 보여준 신사다운 승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북 전쟁 이후 가장 날 선 정치적 대립과 내분을 겪고 있는 워싱턴에서 타협과 관용의 길은 이제 실낱같이 좁아졌다. 또한 미국의 선거 제도와 관리에는 여전히 투표자 신분 확인 절차의 미비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전수 재개표 요청 시 호되게 항의를 치를 제도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이라고 불리는 외부 세력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추측도 있다. 트럼프를 선호하는 러시아와 북한, 해리스를 선호하는 중국과 이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초현실주의 드라마 같은 미국 정치 상황, 경합주 투표 결과에 주목
초박빙 승부에 불복 사태 벌어진다면 안보·경제·민주주의에 위기
미국 내 정치 불안, 고립주의 노선 대비해 다층적 협력 채널 강화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비관주의자' 돼야

이 가짜뉴스와 음모론 배포 공작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는 패배자 측이 불복을 제기할 또 다른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이번 대선은 미국인만의 선거가 아니라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선거다. 초박빙 승부에서 불복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제 정치와 경제·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다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영향

설령 다행히 차기 대통령이 바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분열된 미국의 현실은 당장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에 대비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신 정부는 국내의 다급한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압박도 받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에만 의존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유지의 힘들어질 수 있다. 권력의 공백은 기존 질서를 요동치게 만들 수 있다. 지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안보 책임과 부담은 증대할 수 있다. 격변기 북한·중국·러시아 연대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 북·중·러

군산 복합체의 은밀한 협력과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의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선제적 방어 구실을 내세운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의 연루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러 조약(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적용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학 구도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 러시아가 휴전 또는 전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에서 지분과 레버리지의 확대를 노릴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역사학자 스티븐 코트킨은 독재 정권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간파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권위주의 정권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독재자들은 자국민이 서구의 보편적 가치와 우월한 제도를 선호할까 걱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문제는 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자는 결국 자유주의 체제의 매력과 힘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집착한 독재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서구 동맹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실질적 협력 집중해야

우리는 가능성이 작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과 고립주의 노선을 대비해 미국과의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워싱턴의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기업, 각종 이익단체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각 부처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단순히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미국 출장 시 방문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조율하는 일도 필요하다. 깊이 있고 참신한 콘텐츠 준비 없는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그 시간과 자원을 부채 간소화 강화 및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협력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해 위기감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도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 헌정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 내 무력 충돌,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라는 공통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는 긴밀히 얽혀 있다. 또한 미국 리더십의 쇠퇴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해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독자적 방어력 증강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외교·안보 정책 일관성도 중요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외교·안보에 관한 초당적인 협력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외치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등의 기회를 통해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 노선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정부 정책에 설득력이 생긴다.

국민 개개인과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역사는 내우외환을 단결해 극복한 사례로 가득하다. 지금은 안일함을 깨고 위기를 직시할 때다. 1940년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월터 리프먼은 허버드대에서 당시 세계정세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결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중히 여기는 권리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품고 있는 모든 희망마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선(善)을 위해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희생해야 한다."

지정학적 격변기의 불안감을 지워버릴 수 없다면 이를 건설적으로 활용하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기대 수준을 낮추자.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비하면 된다. 미국 대선이라는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유유히 건너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자. 검은 백조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비관주의자'가 되자.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옷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FAIRFAX REALTY 50%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생각지’? ‘생각치’?

글을 쓰면서 늘 헷갈리는 것이 ‘생각지/생각치’와 같은 경우다. 발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리 물어봐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지’가 줄어든 때 ‘-지’가 되느냐 ‘-치’가 되느냐의 문제다. ‘-하지’ 앞이 유성음이나, 무성음이나를 따지면 된다. 목청이 떨어 울리는 소리가 유성음이고, 성대를 진동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가 무성음이다.

‘-하지’ 앞이 유성음(모음이나 ㄴ, ㄹ, ㄹ, ㄹ, ㄹ)일 때는 ‘-지’만 떨어져 ‘-하+지=치’가 된다. ‘흔치, 간단치, 만만치, 적절치, 가당치, 온당치’ 등이 이런 예다.

‘-하지’ 앞이 무성음(ㄱ, ㅋ, ㆁ)일 때는 ‘-하지’가 줄어든 때 ‘하’ 전체가 떨어져 ‘지’만 남는다. ‘늑치지, 익숙지, 거북지, 답답지, 섭섭지, 뚜렷지, 깨끗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하다’ ‘-하게’ ‘-하도록’ ‘-하건대’가 줄어든 때도 마찬가지다. ‘다정하다→다정하’ ‘간편하게→간편하’ ‘흔하다→흔하’ ‘이바지하도록→이바지하’ ‘참석하기로→참석하’ ‘생각하건대→생각하’ 등으로 적어야 한다.

유성음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거센소리가 나므로 크게 헷갈리지 않는다. 무성음인 ‘ㄱ, ㅋ, ㆁ’ 뒤에선 거센소리가 아닌 ‘지’ ‘게’ ‘다’ ‘기’ 등으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잔인한 10월



김용원
알래스카주립대
페이뱅크스 교수

아이처럼 연구 내용을 꼼꼼히 듣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이들 일본 과학자를 만난 것은 큰 축복 중 하나였다. 두 석학에게서 배운 것은 학문을 대하는 태도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충고는 두 석학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실패 속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정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격려가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다.

또 하나는 비판과 비평을 곱씹으라는 것이다.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처럼 남의 비판을 새겨두고, 앞으로 정진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한국과 공동연구를 한 지도 10년이 넘어간다. 연구비를 받는 ‘을’의 입장과 연구비를 주는 ‘갑’의 입장은 천지 차이이다. 먼저, 한국 공무원들은 3년간의 보직 재임 기간에 성과를 내야만 승진에 유리하다. 그러다 보니 승진에 목을 매게 된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에게 매년 뚜렷한 연구 실적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게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연구 결과는 예측하는 대로 나오는 법이 절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학 선진국과의 차이이다.

기초과학 분야는 그 성과가 하루아침에 만들

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는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연구 성과가 30~40년 후에 개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한 기초 과학 분야는 없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2021년이 최초였으니 말이다.

국가의 지원이 생산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렇지만, 생산력이 높은 분야의 근본도 기초학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다. 숲을 보려면 숲속이 아니라 숲을 벗어나야 제대로의 숲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임하는 과학자의 마음 자세다. 우선, 대학에서 이들을 위한 최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1000명의 인재 중에서 한 명이라도 특출한 인재를 만들면 그 인재로 인한 파급효과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는 국가적 투자를 부탁하고자 한다. 정권에 따라 변하는 교육은 미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가를 명심해야 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과학자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연구에 전심을 다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초 과학자들에게는 매년 10월이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들의 연구를 지켜주지 못한 환경과 시스템 잘못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도 기초학문이자 종합학문이다. 특히, 극지 연구는 산학연의 집합체가 응집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열린 광장

월드시리즈와 의료 사고



최청원
내과 의사

1881년 10월24일,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간의 월드시리즈 TV 중계를 보고 있을 때 중환자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양키스의 강타자 레지 잭슨이 수비도중 강한 햇빛 탓에 공을 놓쳐 다저스 팬들이 즐거워하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환자실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담당자인 신경내과 전문의의 잘못이었지만 치료에 관여했던 다른 전문의 4명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 사고였다.

대형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주치의뿐 아니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억울함을 느끼는 의사가 있지만 피해자에게 최대의 보상을 해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흉과내과의로 치료에 참여했던 나도 꼼짝없이 몇십만 달러를 보상해야 할 처지였다. 그런데 환자 부모의 특별한 배려로 나는 소송 대상에서 제

외됐다. 대신 환자 측 변호사로부터 시간당 1000달러를 줄 테니 법정 증인을 해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증인대에 서야 하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동료 의사들에게 불리한 증언은 할 수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다행히 환자 측 변호사는 나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내게 큰 전환점이 됐다. 첫째, 전문 치료 분야를 바꾼 것이다. 긴박하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흉과내과 대신 가정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일반 내과의로 진료를 시작했다. 1982년의 일이다.

다른 하나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도 돈에 연연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확신이었다. 그 당시 환자가족은 나도 소송에 포함했으면 보상금으로 몇십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소송 대상에서 나를 제외했다. 평소 환자에게 친절하게 정성을 다한 결과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

의사를 지망하는 후배 의학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환자 치료를 비롯해 모든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다저스와 양키스의 월드시리즈는 그래서 감회가 남다르다. “레츠 고 다저스(Lets go Dodgers!)”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언제, 어떻게 사야 할까?

신디 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 집 보험 점검 필수

데니얼 유
내집 지붕 진단 및 라이선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

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웰빙모아 Wellbeing More

가을맞이 특별세일

20% 할인
여성의류, 극세사 이불, 모자, 가방, 내의, 강아지옷, 이불, 소품

침구세트 세일 20% off

사계절 면이불 • 베개 • 이불패드

가을, 겨울옷
신상
대량입하!



공진단 • 침향환 특별세일

<p>20% 할인</p>  <p>종근당 침향환 프리미엄</p> <p>침향은 나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성되는 진액이 수백년간 굳어져 만들어진 귀한 원료로 세계 3대 향 중 유일한 식물 원료입니다. 종근당 명품 침향보화는 이 귀한 침향의 함량을 22%로 만들어집니다.</p>	<p>20% 할인</p>  <p>김소형 침향환 녹용</p> <p>침향분말 22% 함유 16가지 전통 원료(오가피, 뽕나무잎, 진피, 참당귀, 천궁, 감초, 작약, 황금, 건조차가버섯, 사양발꿀, 녹용, 홍삼, 로얄젤리, 산삼배양근)와 침향 2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p>	<p>20% 할인</p>  <p>광동 침향환</p> <p>광동이 자체연구를 통해 얻은 황금비율 배합으로 18단계 원료 품질 검증 17단계 생산공정, 511가지 원료 품질 규격 검사, 10단계 완제품 품질 검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p>	<p>20% 할인</p>  <p>천호식품 천진단</p> <p>천하를 다스리는 힘 귀한 천진단은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녹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침향, 산수유, 참당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p>	<p>20% 할인</p>  <p>광동 경옥고</p> <p>동의보감의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인삼, 복령, 생지황, 꿀 등 엄선된 약재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섭씨 98도에서 120시간(5일)을 달이는 중속과정을 통한 노력과 정성을 담아 만든 한방 영양제입니다.</p>	<p>20% 할인</p>  <p>황실의 보약 산삼 공진단</p> <p>사향/ 산삼/ 녹용/ 당귀/ 산수유</p>
---	--	--	--	--	---

풍기홍삼 직영점 입점기념 스페셜 세일

종근당

천호식품

		
---	---	---

						
---	---	---	--	---	---	---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h3 style="color: #008000;">애난데일점 (703) 256-5500</h3> <p>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자이언트 & 곰바우 식당 옆</p>	<h3 style="color: #008000;">센터빌점 (703) 830-7755</h3> <p>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앞, 신라제과, 하하핑크 사이</p>	<h3 style="color: #008000;">영업시간</h3> <p>9:30am ~ 7pm (365일)</p>
--	---	--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돌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p>1월 파타고니아</p> <p>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끝' 천국과 우주공간을주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p> <p>10박11일 1/14~1/24 \$6,790 +항공</p>	<p>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p> <p>7박8일 3/17~3/24 \$3,190 +항공</p>	<p>4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p> <p>13박14일 4/30~5/13 \$4,590 +항공</p>	<p>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p>	<p>1월 신비의 인도</p> <p>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피터푸르시크리</p> <p>12박13일 1/28~2/9 \$3,390 +항공</p>	<p>3월 페루일주</p> <p>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p> <p>6박7일 3/23~3/29 \$2,990 +항공</p>	<p>5월 그리스 & 튀르키예</p> <p>*산토리니 옵션</p> <p>10박11일 5/6~5/16 \$2,990 +항공</p>	<p>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p>
<p>2월 코스타리카</p> <p>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p> <p>4박5일 2/4~2/8 \$1,990 (항공포함)</p>	<p>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p> <p>9박10일 3/27~4/5 \$3,990 +항공</p>	<p>5월 발칸 크로아티아</p> <p>아름 연대사를 안고도 때문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발칸과 중세도시의 품격 있는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p> <p>6박7일 5/7~5/13 \$2,990 +항공</p>	<p>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p>				
<p>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p> <p>9박10일 2/17~2/26 \$3,590 +항공</p>	<p>4월 남프랑스</p> <p>수세기 역사를 보유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p> <p>*봄방학 특선</p> <p>6박7일 4/14~4/20 \$2,990 +항공</p>	<p>5월 스페인 & 포르투갈</p> <p>10박11일 5/13~5/23 \$3,390 +항공</p>	<p>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p>				
<p>2월 아프리카 & 두바이</p> <p>13박14일 2/20~3/5 \$9,850 +항공</p>	<p>4월 정통 서유럽</p> <p>4/23~ 5/03 5/20~ 5/30 9/09~ 9/19 10/09~10/19 10박11일 \$3,590 +항공</p>	<p>6월 아이슬란드</p> <p>지구상의 최북단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p> <p>8박9일 6/3~6/11 \$5,690 +항공</p>	<p>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p>				
<p>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p> <p>12박13일 3/17~3/29 \$5,490 +항공</p>	<p>4월 정통 동유럽</p> <p>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p> <p>8박9일 4/30~5/8 \$3,390 +항공</p>	<p>6월 스위스 알프스</p> <p>취리히를 시작으로 바젤-사프하우젠 등 스위스 일주를 한번에~</p> <p>8박9일 6/10~6/18 \$4,590 +항공</p>	<p>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예)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p>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22~12/28 크리스마스 특선 북프랑스+벨기에
12/25~12/31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4/14~4/20 봄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예)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7/08~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8/05~8/15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1~8/16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8/14~8/20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090+항공
8/29~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8~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2190(항공포함)
9/09~9/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9/16~9/26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9/24~10/04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9/30~10/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9/30~10/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10/07~10/13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9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7~10/17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1~10/30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9박10일 \$22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11일 \$35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항공권, 교통편,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 +항공

2025
1차 3/25~4/04
2차 4/15~4/25
3차 6/17~6/27(영아)
4차 9/16~9/26
5차 10/14~10/24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590 +항공
푸켓 \$599 +항공
하노이/하롱베이 \$590 +항공
다낭 \$499 +항공
대만 \$690 +항공
싱가포르 \$790 +항공

일본 여행

3박4일 \$999 +항공
4박5일 \$1499 +항공
5박6일 \$1999 +항공
6박7일 \$2499 +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라켓쇼

일년에 단 한 시간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시티 스펙타클러 쇼 관람

12/23~24 **1박2일 \$499**

펍스기빙 특선

뉴욕

썸릿, 베슬, 리틀 아일랜드

11/29(금) 1박2일 **\$450**

성극 대니얼

+에미쉬마켓 당일

11/7, 11/14, 12/12 **\$199**

동부관광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몬트리올/퀘벡
플라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6일 **\$1350**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3일 **\$650**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주 여행

일출발 8박9일 **\$1500** +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 +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 +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 +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7일 \$1550 +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4일 \$930 +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 +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덱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October 29, 2024

AI 시대의 미술 교육, 위기와 기회

AI 시대에 예술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되찾을까

시카고 대학의 미술사가 제임스 엘킨스에 의하면 이 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눈물을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 그는 네덜란드 화가 디르크 바우츠(Dirck Bouts)가 1460년경에 그린 '울고 있는 마돈나'를 15주 동안 모작했던 한 미술대학 학생의 경험을 소개한다. 몰입의 시간을 거치면서 성모의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학생의 마음에서도 흘러내렸다. 단지 감정이입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형통에 달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도가 2000년의 세월을 관통해 현재적 사건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눈물이 마르고 인내심도 동난 예술교육의 현장에 또 하나의 위기가 몰려온다. 빠른 스크롤과 클릭에 갇혀 사람과의 관계, 사물의 경험이 단절되는 시대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각 자체를 밀어내는 위기다. 검색 엔진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구하는 웹3.0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에 해안과 대안을 구하는 시대의 위기다.

발상의 시간을 가성비 높은 AI에 의뢰

예술가들이 '발상(發想)', 즉 생각을 떠올리는 단계를 AI의 탁월한 리믹스 능력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필요로 하고, 고통을 동반하고,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는 발상의 시간을 프롬프트 작성을 통해 AI에 의뢰하는 것이다. 쉽고 가성비가 높은 길이다. 왜 마다하겠는가.

발상은 창작의 뇌관에 해당한다. 세계 관찰과 성찰이 이 단계에서 융합된다. 세계와 나, 영원과 순간 사이에서 삶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고도의 주의집중 시간이다. 자신과의 고독한 대면이다. 창작의 고뇌, 프랑스의 시몬느 베유(Simone Weil)가 '신(神)에게로 난 직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르네상스 시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1)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한국 여성 얼굴의 모나리자 이미지 (2).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 (3) 개인 소장)을 AI가 밝게 웃는 고흐로 바꾼 이미지 (4). (사진: 심상용)

창의적 발상은 창작의 뇌관인데 예술가들, AI 능력에 자신을 위임 데이터와 진중한 사색은 반비례

항로'라 했던 노선이 가파르게 비좁아지는 것이다. 명상이나 기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현존하지 않는 세상이나 높은 수준을 현실로 초대하는 힘이다. 예술의 임무는 다른 현실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술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 힘의 여부에 의해 예컨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렘브란트 반 레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예술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생성형 AI 시대 예술의 모순은 데이터와 진중한 사색이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미 2006년 시사 주간지 '타임'은 인터넷 콘텐츠를 만드는 'You(너)'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예술을 포함한 공간들의 위기다. 예술가들도 가상주의자로서의 전환을 요구받는다. 그들 가운데 일부

가 물질과 경험을 떠나지 않기를 고집하면서 완강히 버티더라도 점점 더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다. 사회가 더 디지털화되고 AI가 꾸준히 정부와 상품시장에 투입되면 그 영향권을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인간 내부에서 진행되는 불길한 균열

생성형 AI가 예술창작의 산실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인간보다 디지털 도우미를 더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게 산업계의 전망만은 아니다. 예술가들도 AI의 이미지 생성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높여가는 중이다. 예컨대 미드저니(Midjourney) 같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일말의 거부감도 없이 수용한다.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 측면에서도 프롬프팅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신이 애써 만든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주목해야 하는 변화다. 인간의 인식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불길한 균열,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자이자 행위자라는 인식에 나기 시작한 균열이다.

결과물은 더 논쟁적이다. 레픽 아나돌(Refik Anadol)의 작품 'Unsupervised(감독 되지 않은)'에서 디지털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라. 이 영상은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현대미술품 컬렉션 13만여 점을 AI를 통한 해석·변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2차원을 3차원으로 보이도록 하는, 넘실대는 듯한 '눈속임 효과'가 감상의 주된 포인트다. 시각효과는 극적이지만 그것이 다다. AI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냈다는 것을 제외하곤 어떤 새로움도 없다.

심상용 서울대 미술관장

▶ 3면 'AI 미술'로 이어집니다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2025 메디케어 보험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 “**혹**” 달라진 보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파트 B 보험료 보조 플랜과 \$3000의 치과 커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화 주실 분

- ◆ 보험변경 하실 분
- ◆ 65세와 1960년생
-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지자
- ◆ 치과 커버 필요하신 분
- ◆ 안경 혜택과 OTC 혜택

703-591-0009
703-537-9899

조은혜 종합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건물 2층)

Partner 보험회사
앤티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헬스 / 웰케어

학교마다 특색 있어 ... 살펴볼만

LA 한인타운 인근 사립중고교

학부모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미국에 교육 이민 온 사람들이 처음에 갖게 되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런 것이 아니다. LA한인타운에 있는 공립 중고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교외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사립을 찾아야 한다. 교육 이민은 한인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는 사립학교가 곳곳에 많다. LA 한인타운 인근 주요 사립중고교를 알아봤다.

한인타운 인근 초중고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에 앞서서 찾아봐야 할 것이 한인타운에서도 입학이 가능한 매그닛 스쿨을 고려해야 한다. 매그닛 스쿨은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영재반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몇 년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입학이 허용된다는 점 등의 제약이 있다. 대부분 사립학교는 입학시험 성적을 필요로 한다. 거주 교육부 산하 지역 교육구와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사립 초중고교의 수는 LA 인근에만 200여 개에 이른다.

사립학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체 학교 재단에 의해 운영되므로 규모나 운영 방법이 학교마다 다르다. 또한 사립도 공립 같이 학교에 따라 교육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사전에 각 학교의 학습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다양한 학비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의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 다양한 재정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를 선택 사항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어느 학교를 선택하든지 관계없으나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교 가능성과 교통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가나다순)

◆로욤라 하이(Loyola High School of LA)
9~12학년 남학생 대상이며 재학생은 1300명 선이다. 오픈 하우스는 초청된 사람에 한해 11월17일 미니 캠퍼스 투어에 참가할 수 있다. 입학 신청서는 2025년 1월25일에 마감된다. 1월 11일, 18일, 20일 중에 하루를 택해서 HSPT시험을 봐야 한다. 합격 통보는 3월7일에 있고 18일까지 등록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입학 경쟁률이 높다. 학비는 연 2만6600~2만7255달러다.
-문의: info@loyolahs.edu

◆말보로 스쿨(Marlborough School)
1889년 개교했고 7~12학년 대상의 여학교로 재학생은 550명선이다. 2024/2025 학년도 연학비는 5만2850달러다. 스쿨 버스터 운행한다. 매년 10월부터 1월까지 인터뷰가 실시되며 입학 희망자는 매년 10월 초순에 열리는 오픈하우스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지원 마감은 2025년 1월 10일이다. 현장에서 작성하는 에세이 및 교사 2명과 각 학교 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ISEE테스트를 반드시 치러야 하며 합격 여부는 3월 중 통보한다. 33%가 소수계로 한인도 다수 재학 중이다. 시메스터 제도이며 숙제량은 9학년부부터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분량이다. 신입생의 경우 1년에 8차례 성적표가 발송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4차례 성적표가 나온다. 학교에서 해커톤을 개최할 정도다.
-문의: admissions@marlborough.org

◆새언약학교(New Covenant Academy)
K~12학년 대상으로 한인 제이슨 송 교장이 운영하는 초중고 기독교 사립 학교다. 캠퍼스는 저학년 캠퍼스(K-7), 고학년(8~12)으로 나뉜다. 입학시험은 자체시험이고 한인타운에서는 유일하게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카운슬러와 교장 등 운영진이 한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인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타인종 학생도 25%다. 연학비는 1만7900달러(K~5), 1만9300달러(6~8), 2만1200달러(9~12)다. 형제할인(sibling discount)이 있다. 유학생 학비는 30% 더 높다. 특별활동, 스포츠와 진로 지도가 탁월하고 명문대 입학생도 다수 배출하고 있다.

LA인근 주요 사립 중고교

학교	주소	문의	웹사이트
Loyola High School of LA	1901 Venice Blvd. LA	(213)381-5121	loyolahs.edu
Marlborough School	250 South Ross More Ave LA	(323)935-1147	www.marlborough.org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 LA	(213) 487-5437	ncahuskies.org
St. James' Episcopal School	625 S. St. Andrews Place LA	(213)382-2315	sisla.org
The Center for Early Education	563 North Alfred St. West Hollywood	(323)651-0707	centerforearlyeducation.org
Oaks School	6817 Franklin Ave. Hollywood	(323)850-3755	oaksschool.org
Immaculate Heart School	5515 Franklin Ave. LA	(323)461-3651	immaculateheart.org
Page Academy Private School	565 N. Larchmont Blvd. LA(Hancock Park)	(323)463-5118	pageacademyca.com
The Pilgrim School	540 S. Commonwealth Ave. LA	(213)385-7351	pilgrim-school.org
Harvard Westlake School	700 North Faring Road LA	(310)288-3200	www.hw.com
Mirman School for Gifted Children	16180 Mulholland Dr. LA	(310)476-2868	mirman.org
Berkeley Hall School	16000 Mulholland Dr. LA	(310)476-6421	www.berkeleyhall.org
Brentwood School	12001 Sunset Bl. LA	(310)889-2657	bwscompus.com
Marymount High School	10643 Sunset Bl. LA	(310)472-1205	www.mhs-la.org
Crossroads School for Arts & Sciences	1715 Olympic Bl. LA	(310)829-7391	www.xrds.org
Windward School	11350 Palms Bl. LA	(310)391-7127	windwardschool.org

-문의: admissions@e-nca.org
◆세인트 제임스 에피스코팔스쿨(St. James' Episcopal School)
대상은 preK~6학년으로 입학 원서 마감은 프리스쿨은 12월16일, K~6학년은 1월10일이다. 입학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년 10~11월에 오픈하우스 행사가 열린다. 각 학생에게는 인터뷰와 입학시험이 있다. 합격 통보는 1월29일(프리스쿨), 3월14일(K~6학년)에 이뤄진다. 접수로 된 성적표는 3학년부부터 받을 수 있으며 중간고사 및 학기말 고사는 없다. 숙제는 4학년 이상일 경우 1시간 30분 분량이다. 60%의 학생이 소수계다. 한인 학생 클럽도 있다.연간 학비는 2만7000달러(프리스쿨), 3만8000달러(K~2학년), 3만6000달러(3~6학년)다. 전교생은 390명 정도다.
-문의: admission@sisla.org
◆센터 포 에듀케이션(Center for the Early Education)
2세~6학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우 경쟁률이 높다. 올해 신청 마감은 11월15일이다. 인터뷰는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유치원 연령 이하 인터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합격 여부는 다음해 3월에 통보된다. 학비는 연3만 4995달러선이다. 학생의 22%가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 시메스터 제도이며 전학생은 540명이고 교실당 정원수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숙제량은 유치원생의 경우 하루 10분 정도에서 시작해 학년이 높을 수록 많다. 6학년은 2시간 분량이고 28%가 소수계다. ▶문의: info@cee-school.org
◆오크스 스쿨(Oaks School)
K~6학년까지 재학한다. 입학 예상 연도 한 해 전 가을학기까지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월10일 마감한다. 학교는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학비는 연3만5620달러다. 올해 캠퍼스 투어는 10월23일, 11월13일이고 올해 오픈 하우스는 12월4일이다. 23%의 학생이 재정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 시메스터를 채택하고 있으며 24%가 소수계다. 숙제량은 6학년이 하루 30분 정도의 분량이며 추가 비용은 애프터 스쿨과 특기활동에 필요하다. 교원 19명중 아시안은 없다.
-문의: Admission@OaksSchool.org
◆이매쿨렛하트스쿨(Immaculate Heart School)
6학년~12학년 여학교다. 중학교 재학생은 200명, 고교 재학생은 500명이다. 지원서 마감은 2025년 1월15일(중학교), 1월10일(고교)이다. 오픈하우스는 대개 9월에 있다.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인터뷰 심사 절차가 있으며 이전 학년 성적표 및 학력평가시험 점수

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인 학생도 다수 재학생이며 경쟁률이 높다. 합격자 발표는 3월3일(중), 3월7일(고)이다. 학비는 연 2만4000달러선이다. 교복 및 교과서 비용 등은 별도다. 졸업생 중에 해리 왕자와 결혼한 영화배우 출신 매간이 유명 동문이다.
◆페이지 아카데미(Page Academy Private School)
프리스쿨~8학년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캠퍼스별로 학년이 다르다. 그 래서 행콕파크(K~8학년), 베벌리힐스(인펀트~preK), 뉴포트 메사(인펀트~8학년) 등으로 나뉘므로 해당 지역 학교에 전화해 입학이 가능한 지를 알아본 후 신청할 수 있다. 각 캠퍼스에서 1년에 4차례 오픈 하우스 행사가 열린다. 입학은 1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학비는 행콕파크의 경우 2만8000달러 선이다. 65%가 소수계이고 한인 학생도 상당수 재학하고 있다. 숙제량은 4~8학년이 1시간30분 정도 분량이다. 전교생수 캠퍼스별로 300명선이다.
◆필그림 스쿨(The Pilgrim School)
4세~12학년이다. 5세 미만 입학은 1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유치원부터는 12월20일 접수를 마감한다. 유치원 입학생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만 5세가 돼야 가능하다. 유치원 ~3학년 입학생은 영어 및 수학과목에 대한 입학시험을 봐야 하며 4학년 이상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학비는 학년에 따라 2만3000~4만달러 선이다. 전교생수는 600명 정도다. 90%가 소수계이며 서머 프로그램,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올해 중고생 캠퍼스 투어는 11월2일이다. 보딩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있다.
◆하버드웨스트레이크 스쿨(Harvard-Westlake School)
1900년에 개교한 '하버드스쿨'과 1904년에 개교한 '웨스트레이크스쿨 포걸스'가 1989년에 합쳐서 남녀공학이 됐다. 7~12학년 대상으로 현재 재학생은 1600명이다. 2024/2025 학년도 학비는 4만7900달러다. 지원 마감은 2024년 11월15일이다. 합격 여부는 3월 4일에 통보한다.
-문의: admission@hw.com
장병희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 ▶ 디씨 콘도 렌트, 스튜디오 \$2100 아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워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 ▶ 스텔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 ▶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입주 가능
-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독점 리스팅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약착같은 부동산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노벨 생리의학상에 관심을

매년 10월이면 세계인의 이목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집중된다. 수상하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제 상을 가져오는 절대적 권위의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늘 부러웠지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되었던 노벨상이 명실공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인해 최고 문학국 반열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침체되었던 출판 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독서는 다시 시민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노벨상이 주는 문화적 선물이다.



생리의학상 수상자 절반이 의사 일본 의과학자 16명 노벨상 받아 오랜 기간 연구환경 구축의 결과 의대 정원 확장만으론 불가능

부문마다 최고의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지만 '인류복지 공헌'이라는 수상자 결정의 취지를 볼 때 상의 백미는 단연 '인류 건강'과 직결된 생리의학상이 아닐까 싶다. 올해 수상자로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빅터 앙브로스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의 게리 리브킨 교수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1993년 세포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인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노벨 생리의학상은 190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23년이 흐르는 동안 22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이중국적을 포함, 미국이 114명으로 독보적 강세를 유지해 왔다. 이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실제 역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 중 유럽이 압도적이다. 선진국 평가를 받는 웬만한 유럽 국가들 모두 수상자를 배출했다.

최근 노벨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옆나라 일본의 약진이다. 상을 받은 일본 의과학자는 16명에 달한다. 경이로운 일이다. 일본의 도드라진 약진은 아시아 국가로는 패전 이후 근대화를 시도하며 현대 기초과학의 출발에 동참했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해 연구환경을 구축한 결과다. 실제 일본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기초과학 연구소가 즐비하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지속적 투자와 합리적 인재 육성 정책 등이 연속된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수상자의 면면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아우르고 있다. 의학적 연구 환경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린 어떤가. 노벨상에 근접했다고 평가받은 연구자 대부분은 여전히 해외 대학 박사 출신이다. 일본과 사뭇 대조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연구 환경 차이도 확연히 다르다. 일본과의 경제 규모와 인구 차이를 감안한다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세계 상위권이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을 위한 거시적 연구 목표 설정과 연구비의 효율적 배분은 미흡하다. 우리는 너무 수도권 집중적이며 결과에 조급하다. 이런 토양에서는 일본 같은 생리의학상 수상자 배출은 요원하다.

역대 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의사가 절반이 넘는다. 의사가 노벨상을 탔다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만이 아닌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였다는 의미다. 우리 의사들은 의대 재학 시절부터 의사로 활동하기까지 연구를 통해 과학적 발견을 이룰 기회가 거

의 없는 교육 환경에 직면해 있다. 현재와 같은 의학 교육과 연구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생리의학상 수상자 배출은 불가능하다.

현대 의학은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 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말라리아 등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은 여전히 공포스럽다. 완벽에 가까운 예방백신 개발이나 2형 당뇨병, 말기 암의 치료법, 인간의 노화를 되돌리는 역노화 기술 등 인류의 숙원인 미완의 의과학에 우리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려면 대대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가.

노벨문학상 열풍을 전하는 언론의 다른 지면에는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여파로 서울 '빅3' 병원 중 4곳(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서울성모병원)이 올 상반기에만 총 2135억 원 적자를 보았다는 기사도 실렸다. 전공의 이탈 후 입원·수술이 급격히 준 영향일 것이다. 환자의 불안과 불편이야 말할 나위가 없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 병원, 특히 지방 병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

의대생에게 충분한 연구 과정을 경험하고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인적·재정적 자원은 취약하다. 의학연구에 대한 교육도 의대 학부과정에서 등한시되고 있다. 의사가 연구에 집중하거나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땅치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의과학 분야로의 진로를 권할 수 있겠는가. 환자 진료보다 의과학 연구를 더 주된 업무로 하는 의사 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의정 갈등은 진행형이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노벨문학상에 이어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기다린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안태환 의학박사·이비인후과 전문의

> 1면 '시 미술'에서 이어집니다

느속임 효과는 르네상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루한 주제일 뿐이며 인식의 전환, 새로운 세계로의 안내, 감각의 고양이나 숭고한 정신과는 무관하다.

과정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AI 예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AI는 기계가 아니라는 점이 그것이다. AI는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유형의 '지능'이다. 이 지능은 단순한 번역이나 변환 과정이 아니다. 'AI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건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와는 다른 차원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과정은 전적으로 AI가 주도한다. 번역이든 이미지 변형이든 인간은 관여할 수 없다. 과정 전체를 기획한 아나톨 조차 이미지 생성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알 수 없다. 결과물이 실망스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비인간 지능이 막대한 전기를 포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예술은 사고의 진전에 기여해야

예술은 과정에 동원되는 기술이 무엇이든 사고의 진전에 기여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이제껏 해왔던 그 일을 지속하면서 더 나은 미래의 초석을 까는 것, 비록 비극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이라는 다짐을 되새기는 사고, 인간의 위대성의 산실이 되는 이 사고는 세 조건을 요구한다. 과거를 스승으로 삼을 것, 기원을 생각할 것, 현실의 절박함을 기억할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술의 일이기도 하다고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말한다.

이 사고가 다음 세대 예술가들의 가슴에 자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대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예술대학의 작업실을 뜨겁게 달궜어야만 희망이 있다. AI의 열풍 속에서 인간을 황혼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창조적인 신념, 애써 만들어진 미덕, 많은 가능성과 미혹 앞에서

어질어질한 망설임을 내면에서 되살려내도록 하자. 수면에서 깨어나는 것, 부흥(revival)이라는 정신의 역동성이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것, 지성의 신앙이 기지개를 켜고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꿈의 목록에서 앞부분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범용AI의 인간 대체 주장엔 거품 많아

AI와 예술의 앞날에 대해서 부산한 논의들이 이어진다. AI가 이미 인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범용 AI가 인간예술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는 진단도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예술가의 고전적인 자질들, 즉 해방의 열망과 도덕적 고뇌 따위는 이내 무용해질 거라는 괴담 수준의 우려와도 심심치 않게 마주한다. 하지만 그런 담론들에는 거품이 많이 섞여 있다.

희망을 버려야 할 이유는 없고, 그렇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방해 없이 역사를 만들지 않지만, 그런데도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예술가들은 더 진화된 AI 기술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혁신만으로는 자신의 개발자인 인간의 부조리를 초월할 수 없다는 깨달음과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 인공지능이나 강인공지능(AIGI)이 인간의 오류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지 그 반대일지 불확실하다. AI가 역사를 어느 쪽으로 이끌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답해야 하는 주제는 변함없이 인간이다. AI는 예측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의식과 정신은 없다.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거나 결정에 대해 반추해야 할 궁극의 이유가 없다. 미래와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가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 했던 것인 '정말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 채 사는 것'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AI에게 촉구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차가워진 시대의 아궁이에 불을 지필 것인가. 이에 답하는 임무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예술가에게 주어지고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국기

깃발은 간단하면서도 심리적 효과를 자아내는 집단적 매체이다. 어느 단체를 하나의 천 조각으로 응축해 놓아 구성원들을 결집시킨다. 작게는 학교, 관공서, 군대 등을 상징하고 국가 간 교류와 분쟁에 국기가 쓰이기도 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응원할 때 의례 국기를 흔들고 역사의 극적인 장면들에도 국

기가 등장한다. 심지어 판타지 SF 영화에서 외계 종족들이 백병전을 벌일 때에도 기수가 앞에서 전진한다.

정해진 문양을 그린 단순 천 조각이 어찌 그리 큰 효과와 의미를 자아내는가. 사회생활을 통하여 각인되는 면이 크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깃발의 물리적 특성에 인간의 관심을 끄는 면이 있

을 것이다. 깃대에 매여있는 깃발은 바람이 없으면 축 늘어져 있고 적당한 바람에는 술렁술렁, 강한 바람에는 파르르 소리까지 내며 팔력이다. 이에 따라 그려진 문양의 형태도 애니메이션처럼 바뀌며 자연스레 인간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다.

깃발의 팔력임은 바람에 의해 형성된 파동이 천을 따라 전파되는 현상이다. 이 파동은 깃대에 묶인 깃발 위쪽 모퉁

이를 고정 축으로 하고, 묶인 아래쪽 모퉁이에서 시작하여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 경우 시계바늘이 6시에서 3시 방향으로 돌듯이 진행한다. 비스듬한 파동의 결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며 부양력을 가하여 늘어진 깃발이 점차 펼쳐지게 된다. 비행기 뜨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대각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은 깃발의 반대 끝 아래 모퉁이를 거쳐 빛 모퉁이를 마지막으로 허공으로 사

라진다. 파동이 자지러지는 빛 모퉁이가 가장 많이 요동쳐서 오래된 깃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희로애락 인간사에 유구히 연루된 깃발은 국가와 종족을 초월해 중력과 공기의 유체역학, 그리고 천의 물성과 기하학적 경계조건의 조화로 팔력이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팔력이는 국기가 새삼 보여준다.

황원목 텍사스 A&M대 생명공학부 교수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rook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카중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커리어 준비하기

내가 찾는 의미·재능·미래 시장수요는 대학 진로 선택 때 고려할 결정적 요인

내가 대학생일 때, 나 또한 캠퍼스에서 인기가 높거나 즉각적으로 가장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근거하여 진로를 선택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많은 인생 경험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가면서, 나는 진로 결정에 접근하는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다. 아래는 내가 함께 일하는 학생들과 진로 선택지에 대해 논의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진로 선택을 고민할 때 학생들이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모두 다르며 보편적인 정답은 없다.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적 가치와 직업적으로 일치하는 진로를 찾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선 사업에 참여하거나 가족을 꾸리는 것과 같이 업무 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제공

하는 진로에서 일하는 것 또한 충족감을 준다.

▶자신이 뛰어날 수 있는 것

학생들은 또한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활용하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높은 천장’을 가진 진로를 찾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다시 말해 헌신적인 시간과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람보다 뛰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농구를 사랑하지만, 키가 크지 않거나 운동적으로 재능이 없다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농구에서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대신, 그들의 재능이 그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진로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불하는 것

개인의 가치에 부합하며 개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읽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고용주든 고객이든 그들의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진로를 찾아야 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크고 또한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는 진로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 내 의견으로는, 사이버 보안과 간호가 그런 두 가지 진로 분야이다.

내가 왜 기업금융계를 떠나 커리어 코칭 사업을 시작했는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위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고 답변한다.

첫째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했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주

식을 조사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대신, 나는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찾았다.

둘째로, 내가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주식 분석가로서, 나는 내가 경쟁 우위에 있지 않고 다른 아이비리그 MBA 졸업생에 의해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고 느꼈다. 반면 커리어 코칭을 통해, 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제안들을 할 수 있다. 커리어 상담가 중에서 나와 같은 교육적/전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시장 기회를 고려했다. 나는 고도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다.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20년간 커리어 코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성장을 경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프레임워크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성취감을 느끼는 장기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임스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

에듀 포스팅

관심분야 리스트 작성해 선택하고 관심 없는 분야도 파악하면 도움

전공을 미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충분하지 않은 정보와 자신의 경력과 관심사에 가장 적합한 전공을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 있다. 공부하고 싶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더 오래 대학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학에서 정확히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13단계를 검토해보자.

1. 좋아하는 관심사 파악

Think Tank인 New America의 교육 정책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다.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성과, 생산성과 만족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궁극적으로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 분야들을 모두 나열해 보면 좋다. 커리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관

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관심 없는 분야도 파악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관심이 아예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사무실 칸막이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게 괴로울 것 같다면 회계, 금융, 데이터 애널리스트 등 사무직 관련 전공은 적성에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러 곳으로 출장을 다니는 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전공은 다음과 같다: 환경과학자, 고고학자, 조경가, 토목기사, 승무원, 사진가, 통역사, 영업사원 등.

3. 실제 경험을 얻어라

경험을 쌓는 것은 자신이 택할 길이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음에 두고 있는 대학 전공이 올바른 선택인지 결정할 수 있다. 대학에 지원하기 직전에 시간을 투자하여 관심 분야의 일을 해보며 소중한 통찰력을 직접 얻는 것을 추천한다. 여름 인턴, 교내 업무, 인턴십, 견습, 자원봉사 활동, 캠퍼스 활동, 자격증 및 인증 취득 등 여러 방법으로 경

험을 쌓을 수 있다.

4. 미래 급여를 조사한다

어떤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위마다 신입사원, 경력직의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후 대학에서 공부할 분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연평균 초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과학자: \$124,134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08,175
- 석유 엔지니어: \$103,168
- 통계학자: \$95,552
- 간호사: \$91,494
- 화학 엔지니어: \$90,409
- 건설 관리자: \$82,746
- 비즈니스 분석가: \$78,102
- 웹 개발자: \$75,752
- 변호사: \$75,317
- 인사팀 관리자: \$72,003
- 그래픽 디자이너: \$59,120
- 사회 복지사: \$59,455

5. 부모-멘토의 조언을 구하라

가족, 지인, 혹은 멘토를 통해 관심 분야 및 희망 전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지인들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산업의 몇십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현재 직장을 찾게 되었는지,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가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다.

6. 고등학교 카운슬러와 상담

고등학교 카운슬러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있다.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관심을 강조할 수 있는 수업 및 교내활동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족 소득에도 잘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을 찾아준다.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카운슬러들이 있다. 학업 카운슬러나 지도 교수를 찾아가면 목표하는 방향에 맞춰 과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레이스 김 원장·아이멘트에듀케이션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배우 조승우(큰 사진 흰 옷)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연출 신유청)을 통해 첫 연극 무대에 도전했다. 지하 방공호처럼 철저한 왕궁 무대에서 고뇌하는 햄릿에서 나아가 온몸으로 노래하듯 변화무쌍한 감정 묘사를 펼쳤다.

[사진 예술의전당]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내가 여기에 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 명대사가 배우 조승우(44)의 입을 통해 이렇게 변주됐다. 지난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개막한 연극 ‘햄릿’(연출 신유청)은 그가 영화 ‘춘향전’(2000)으로 연기 데뷔한 지 24년 만에 첫 도전한 연극이다. “사느냐 죽느냐” 사색에 골몰한 유유부단한 기존의 햄릿에서 더 나아가 공감하고 행동하는 햄릿으로 재해석했다.
 ‘오페라의 유령’ ‘헤드워’ ‘지킬 앤 하이드’ 등 뮤지컬 무대를 장악해온 조승우가 록스타 같은 매력으로 객석을 쥐락펴락한다. 25일 객석 1000여석을 가득 채운 관객은 숨 죽인 채 그의 연기를 지켜봤다. 울고 익살 부리고 드러놓고 바닥을 기는 등 온몸으로 노래하는 듯한 변화무쌍한 연기로 ‘공연시간

185분(인터미션 20분 포함)의 연기 차례쇼’란 평가를 얻었다.
 다음 달 17일 폐막까지 매회 약 900석, 한 달 분 티켓이 예매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되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연극 부문 월간 예매순위 1위에 올랐다. 레바논 내전 참상을 가족사에 담은 백상예술대상 백상연극상 수상작 ‘그을린 사랑’, 세기말 미국을 서울 무대로 옮긴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연출가 신유청이 연출을 맡았다.
 올 여름 여성 햄릿을 내세운 국립극단의 ‘햄릿’(연출 부세림), 원로 배우가 대거 출연해 지난달 막을 내린 신시킴퍼니 ‘햄릿’(연출 손진책) 등 최근 ‘햄릿’ 공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신 연출은 “햄릿은 언제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책임적 자아인데 요즘처럼 책임이란 단어가 엄중하게 다가온 적이 없

데뷔 24년 만에 첫 연극 도전
 예매 10분만에 한달치 티켓 매진
 죽느냐 사느냐 유유부단 햄릿 아닌 “내가 여기 있다” 행동가로 재해석
 다. 그렇기에 오늘날 수많은 햄릿이 공연되는 게 아닐까”라고 연출의 변에서 밝혔다.
 무대는 토월극장의 깊이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기울어진 기둥, 깎아지른 벽과 계단 등 거대한 지하감옥 같은 덴마크 왕궁에서 햄릿은 새로운 시대와 불화하는 구습적 왕국의 혼란상 그 자체가 됐다.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자를 경유하는 방법뿐”이란 신 연출의 해석이 도드라진다. 햄릿은 선왕인 아버지 유령(전국환)과 형을 살해하고 왕위를 가로챈 숙부 클로디우스(박

성근), 숙부와 결혼한 어머니 거트루드(정재은), 희생당한 순결 오피리어(이은조) 등에 마치 차례로 빙의하듯 공감한다.
 선왕의 살해 과정을 재현한 극중 연극의 비중도 커졌다. 햄릿이 극 중 극의 연출자 역할에 적극 나선다.
 다른 캐릭터들이 약화한 측면은 있다. “‘햄릿’에서 풀리지 않던 의구심들이 설명됐다” “수많은 ‘햄릿’을 봤지만 처음 눈물을 흘렸다”는 호평과 “조승우 배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이상 인터파크 예매고객관람평) 등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다.
 신구 세대 대결도 한층 선명하게 그려졌다. 원작에서 거트루드가 햄릿에게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지 마라”고 세 번 반복한 대사가 신 연출에게 힌트가 됐다고 한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알린 95개조 반박

문을 붙인 곳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였다.
 새로운 시대를 보고 돌아온 햄릿은 아버지의 서거 후 연화와 축포에 취한 왕가의 후퇴와 모순 앞에서 깨진 거울처럼 산산이 조각난다. 신 연출은 쉽게 푼 구어체의 반복적 대사로 “관습과 구질서의 틀 속에서 한걸음 진보하려는 몸짓과 노력”을 햄릿에 부여한다.
 노르웨이의 치밀하고 용맹한 왕자 포틴브라스(송서유)가 덴마크의 운명을 넘겨받는 결말도 햄릿이 포틴브라스를 이상적 리더로 인정하는 대사를 통해, 마치 그가 바랐던 운명처럼 다가온다. 덴마크의 자멸 속에 적극 노르웨이에 국운이 넘어갔던 여타 ‘햄릿’의 묘사와 차별화한 지점이다. 유일하게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힌 친구 호레이쇼(김영민)가 후대에 햄릿의 속내를 전한다.
 나원정 기자

클리퍼스, 새 홈 경기장 첫 경기 패배

빅3 고른 득점 피닉스에 연장전 끝 113-116 분패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가 새 홈 경기장에 치른 첫 경기에서 분패했다.
 LA 클리퍼스는 지난 23일 잉글우드인 뉴이티 돔에서 열린 2024-2025 NBA 정규리그 피닉스 선스와 홈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113-116으로 졌다.
 LA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까지 LA

의 크립토닷컴 아레나를 LA 레이커스와 함께 홈 경기장으로 공유했다.
 이번 시즌 뉴이티 돔을 새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LA 클리퍼스는 시즌 첫 홈 경기에서 접전 끝에 3점 차 패배를 당했다.
 4쿼터 종료 20초 전까지 2점을 앞섰지만 피닉스 케빈 듀랜트에게 동점 골을 내줘 연장에 들어갔고, 연장에서는 2점 뒤진 종료 4초 전에 제임스 하든이 자유투 2개를 얻었으나 1개를 놓쳐 승

리를 따내지 못했다.
 피닉스는 듀랜트가 25점, 브래들리 빌 24점, 데빈부커 15점 등 ‘빅3’가 고른 공격력을 보였다.
 커와이 레너드가 결장한 LA 클리퍼스는 하든이 29점, 12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분전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스티븐 커리가 트리플 더블에 리바운드 1개가 모자란 17점, 10어시스트, 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



선스의 케빈 듀랜트가 슈트를 하고 있다. 듀랜트는 25득점을 올렸다. [로이터/Kirby Lee-Imagn Images]

저스에 139-104로 크게 이겼다.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유타 재즈에 126-124로 승리했다.

자 머랜트가 22점, 10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일본인 가드 가와무라 유키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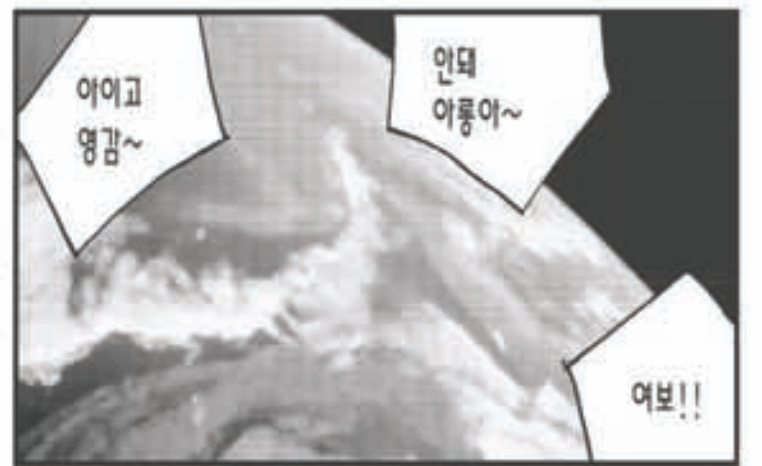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금주의 주제 힘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사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밀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렌트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jwi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업체세일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원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원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력자 우대. 베네티트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 좋은 인성과 성실함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6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중앙일보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포츠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경력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슈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타임 시스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식당/식품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571-970-8048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벤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알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력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난데일. 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홍보마사해주실분
703-473-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처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종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셔, 워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
실 1.5 즉시 입주 가능 / 깨끗하고 위
치 좋음. \$2,150
301-466-1646
301-529-2175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군
703-336-3283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금매
렌트 \$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 수도꼭지 교체 ◆ 루핑수리/거러교체
◆ 싱크/디스포저 ◆ 사이딩 리페어/창문
◆ 워터히터/물새는것 ◆ 데크 수리
◆ 하수막힘/변기교체 ◆ 드라이월/페인트
◆ 셉퍼프 교체 ◆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for the most part: 대부분, 심중팔구는

(Katherine is talking to her friend David ...)

(캐서린이 친구 데이비드와 얘기를 나눈다...)

Katherine: How was Erica's party on Saturday?
캐서린: 토요일에 에리카의 파티는 어땠어?

David: It was okay.
데이비드: 무난했어.

Katherine: Just okay?
캐서린: 무난하기만 했어?

David: For the most part it was good.
데이비드: 대체로 좋았어.

Katherine: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캐서린: 뭐가 마음에 안들었어?

David: The food left a lot to be desired.
데이비드: 음식이 좀 아쉬웠지.

Katherine: The food was bad?
캐서린: 음식이 안 좋았어?

David: Yes. And the music wasn't very good. Erica doesn't know how to throw a party.

데이비드: 응. 그리고 음악도 별로였어. 에리카는 어떻게 파티를 여는지 몰라.

Katherine: That's too bad.
캐서린: 그거 안됐네.

David: I should have brought my CDs. That would have livened things up.
데이비드: 내 CD를 갖고 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분위기가 살았을 텐데.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leaves a lot to be desired: (무엇에) 아쉬운 점이 많다.

"That movie wasn't very good. It left a lot to be desired."

(그 영화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Mary is going to throw a party for her sister. It's her birthday."

(메리가 여동생에게 파티를 열어준대요. 생일이거든요.)

▶ liven things up: 분위기를 띄우다.
"Jim is bringing Chinese food to the poker game. That should liven things up."

(포커 게임을 하는데 짐이 중국 음식을 가져왔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띄워졌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함. 자 □□□□ (4)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동□□□ (7)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 중생구제를 목표로 하는 이타정신의 극치이다 (9) 무로 담긴 일본식 찐지 (11) 담비의 꼬리가 모자라서 개꼬리로 이름.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름 (14)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국토의 재건과 ~에 전력을 기울였다 (16) 잘 때 뒹쫂 (18) 머리털이 한곳을 중심으로 빙 돌아 나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된 부분 (20)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주거 지역에서만 안 된다고 하는 일 (22)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25) 마음속으로는 간절하지만 감히 청하지 못함. 고소원(분디 바라딘 바)이나 ~이라 (28) 딸을 시집보낼 때 시가의 식구들에게 예를 차리기 위해 보내는 옷감이나 옷가지 (30)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음.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음 (31) 완전히 잠이 들지도 못해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렵픈한 상태. □ 풍□□

세로열쇠

(2)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 (3)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5) 도둑을 맞지 않으려면 이것을 잘 해야 하지요 (6)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고적을 ~하다 (8) 야구 경기 시작할 때 저명인사가 포수에게 공을 던짐 (9) 늘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손님. 오실 땐 ~ 안 오실 땐 남 (10) 걸음을 도우려고 짚은 막대기 (12)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13) 산에서 나무하는 사내. 때로/~의 날선 낮이/내 아끼는 가지를/찍어가고/푸른 도끼날이/내 옆에 나무에 와 번뜩이나/내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날까지는/내 스스로 더욱/빛내야 할 나의 세기(박두진) (15)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쓰는 모양. ~ 먹고 마시며 놀다. □청□□ (17) 변덕스럽고 간사하며 꾀가 많은 여자 (19) 자연 암벽에 조각한 불상 (21) 돼지의 가죽 안쪽에 붙은 기름 (23) 남에게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운수 (24) 핏줄을 이어받은 먼 자손. 태양의 ~ (26) 감탄이나 놀람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27) 산에 오를 (29)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

스도쿠

		8			2	6	7	
					3	4		
9	7			1	5	8		
	4		7		9		1	6
2	1		4	5			3	
			1				4	8
		5	2		7	3		4
	3					1	8	
4	6		3	8		9		7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5	6	1	8	3	9	7
2	8	1	4	9	5	6	3
4	9	3	7	6	2	5	8
8	4	2	9	3	1	7	5
6	3	7	8	5	4	9	2
9	1	5	6	2	7	3	8
3	2	8	5	1	9	4	6
5	6	4	3	7	8	1	9
1	7	9	2	4	6	8	5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 지역**

잘되는 옷수선 전문점
급귀국 양도매매, 맨하탄버치
(213)268-9946

매매 기타 구인

모지 급매(주인) **홀트 식물원** **아침 양식국/달리버리**

2저리에 \$9,500(네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Jung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us.srotech.com **차콜온돌** **건식온돌 난방**
charcoal ondul 친환경탄소복합소재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ópolis

미국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지 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채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벅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대 \$1,400 450g	특대 \$1,800 450g	중 \$1,200 450g
-------------------	--------------------	-------------------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썩어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전화주문 **714.833.4988**

* Pay by Zelle or Check (payable to Han You)
* No credit card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lb 대추	\$140/10LBS·1BOX \$11/lb 대추	\$100/10LBS·1BOX \$7/lb 대추
--------------------------------	--------------------------------	-------------------------------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